

인터넷 뱅킹 75% 보안프로그램 필요

전체 메뉴 요구 금융회사도 15곳... 금감원, 강제설치 대상 줄이고 설치 선택권 부여 방침

인터넷뱅킹 등 은행의 전자금융 거래를 이용할 때 10개 메뉴 중 7~8개는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의 전자금융 거래용 웹사이트 보안프로그램 설치 현황을 점검한 결과 10월 말 현재 은행권의 평균 설치 비율이 75.21%로 나타났다고 24일 밝혔다.

전체 100개의 메뉴가 있다고 가정할 경우 평균적으로 은행은 75개의 메뉴에서 보안프로그램 설치를 요구한다는 의미다.

증권사의 보안프로그램 설치 비율은 48.37%, 보험은 50.23%, 카드는 48.50%였다

특히 전체 메뉴에 보안프로그램 설치를 요구하는 금융회사도 15곳에 달했다. KB생명, KB손보, 농협생명, 더케이손보, 롯데손보, 삼성화재, 한화생명, 한화손보 등 보험사가 8곳으로 가장 많았고 SC은행, 대구은행, 제주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등 은행도 6곳이나 됐다.

다만 롯데손보와 KB손보 등은 보안프로그램 관련 개선 작업을 현재 진행 중으로 연말 안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안프로그램 강제설치 대상은 줄이고 설치 선택권을 부여할 방침이다.

일단 금융상품 소개, 부동산 시세 조회 등 단순 조회성 웹페이지는 금



대한민국 광고대상 수상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2016 대한민국 광고대상' 시상식에서 SK텔레콤 Brand Comm.팀 채영훈 팀장(가운데), SK플래닛 CP6팀 이명숙 팀장(왼쪽), 제작사 '시대의시선' 이현정 PD(오른쪽)가 SK텔레콤의 기업브랜드 캠페인 '연결의 힘' 프로젝트 중 하나인 '연결의 신국발표'로 통합미디어 부문 금상을 받은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용소비자가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아도 이용 가능하도록 지도하고 자금체 등의 경우에도 보안성 확보에 필요한 최소한의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독려할 예정이다.

또 보안강화를 위해 보안프로그램을 원하는 고객은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안내하고, 설치를 원하지 않는 고객에 대해서는 강제로 설치하지 않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단 전자금융거래 서비스의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와 금융회사에 대한 침해사고 발생 여부 등 전자금융사고 발생의 원인을 밝히는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 등은 제외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안 프로그램 설치 빈도를 50% 이상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금융협회, 금융보안원, 금융회

사 등과 추진협력을 구성해 보안프로그램 개선을 위한 세부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며 "대부분의 금융사는 내년 중으로 개선을 완료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당국은 금융회사별 보안프로그램 설치 요구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이를 받거나 분기별로 공시할 계획이다. /뉴스

베이징현대 5개 차종 '내구품질' 1위

베르나·위에동·투싼·ix35·싼타페... 해당 차급에서

현대자동차는 중국 자동차 내구 품질조사에서 중국 합작법인 베이징현대의 5개 차종이 1위를 차지했다고 24일 밝혔다.

제이디파워(J.D.Power)가 지난 23일 발표한 '2016 중국 내구품질조사'에 따르면 베이징현대의 베르나, 위에동, 투싼(JM), ix35(LM), 싼타페 총 5개 차종이 해당 차급에서 1위에 올랐다.

이번 조사는 2012년 5월부터 2013년 8월까지 신차를 구매한 중국 주요 46개 도시 거주 1만9000여명 고객을 대상으로 신차 100대당 불만 건수를 조사해 만족도를 측정했다.

조사 대상은 중국 내 시판 65개 브랜드, 191개 차종이다. 점수가 낮을수록 품질 만족도가 높다.

제이디파워가 총 15개 차급별 내구품질 순위를 발표한 결과, 베이징현대의 베르나(117점)가 소형 차급에서 폭스바겐 폴로(132점)를

제치고 1위에 올랐다.

위에동은 122점을 획득해 푸조 308(127점), 폭스바겐 골프(128점) 등을 제치고 준중형 차급에서 1위를 차지했다.

SUV 차급에서는 베이징현대의 투싼(JM)이 110점으로 소형 1위, ix35(LM)은 115점으로 중형 1위, 싼타페는 99점으로 대형 1위에 올랐다.

브랜드별 순위에서도 베이징현대는 전체 45개 일반브랜드 가운데 4위에 올라 지난해(5위)보다 한 계단 올라섰다. 동평위에도가기는 8위에 올라 지난해(7위)보다 순위가 소폭 하락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지난 9월 제이디파워 신차품질조사에 이어 이번 내구품질조사에서도 좋은 결과를 얻었다"며 "특히 SUV 차급에서도 1위에 오른 만큼 중국 시장 공략에 한층 힘을 쏟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뉴스

융합섬유연 '3D 침구매트 개발' 선정

무한섬유와 1년간 공동 진행

ECO융합섬유연구원(원장 백철규)은 이너웨어 및 유아제품 원단 전문 생산기업인 무한섬유(대표 양성진)와 공동으로 중소기업청에서 지원하는 2016년도 산학연 협력기술개발사업 '3D Spacer 조직을 이용한 흡습/항균성이 우수한 자카드 환편 침구 매트 제품 개발' 과제 선정에 따라 앞으로 1년에 걸쳐 쾌적한 잠자리를 위한 3D 침구매트 개발을 진행한다.

기존 환편 원단은 형태안정성이 낮아 침구 제품군으로 사용하기 힘든 반면 쿠션감과 통풍성이 우수한 3D 조직에 환편 원단을 적용한 제품은

평균 기능뿐만 아니라 땀을 빠르게 흡수하여 쾌적한 숙면을 제공할 수 있다.

ECO융합섬유연구원에서는 기능성 원사의 가공을 통해 최적 기능성 발현을 중점적으로 맡아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며, 무한섬유는 새로운 조직의 환편원단과 생산공정 개발을 통해 침구시장에 적극적 대응할 계획이다.

무한섬유 양성진 대표는 "흡습/항균성이 우수한 3D 침구매트 개발을 통해 기존의 이너웨어시장뿐만 아니라 유아용 침구시장에서 기술적 경쟁력 우위를 통해 새로운 매출이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익산=장양원 기자

“가계부채 특별점검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

은행권, 대출 유형별 증가추이 점검... 상호금융·새마을금고 중심 특검

금융감독이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한 가계부채 특별점검을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내년 상반기까지 가계부채 T·F를 통해 은행권과 비은행권의 가계대출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다고 24일 밝혔다.

은행권은 자체적으로 수립한 가계대출 계획과 실적과 비교해 리스크 관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지는지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매일 개별 주택담보대출, 집단대출, 기타대출 등 대출 유형별로 가계대출 증가추이를 살피고 가계대출 증가세가 빠르고 리스크관리가 취약할 것으로 우려되는 은행에 대해서는 상시감

시를 강화하고, 필요하면 현장점검에 나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내년 가계대출 관리계획은 영업 확대보다 리스크 관리에 중점을 두고 수립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제2금융권은 가계대출이 급증한 상호금융 조합 및 새마을금고를 중심으로 특별검사를 실시한다.

지난 9~10월 두달 동안 상호금융권 대출은 작년 9~10월보다 4조5000억원, 새마을금고는 2조8000억원 늘었다.

특히 상호금융 비주택담보대출, 새마을금고 집단대출 등 최근 급증한 대출의 리스크관리 실태 등을 집중 점검한다. /뉴스

주요 점검사항은 주택담보인정비율(LTV)·가산비용 적용 적정성대출심사와 감정평가간 업무분리, 외부감정 평가법인 선정 공정성집단대출 사업성평가 적정성, 심사절차 준수여부 등이다.

당국은 리스크관리 미흡사항과 절차 미준수, 위규사항 등이 발견될 경우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22일까지 상호금융 26곳, 새마을금고 32곳 등 58개 조합에 대한 점검을 완료했다"며 "나머지 32개(상호금융 30개 새마을금고 2개) 조합을 점검 중으로 연말까지 18개 조합을 추가 점검하고 내년에도 점검을 이어갈 것이다"고 말했다. /뉴스

폭스바겐 '트랜스폼 2025+' 발표

폭스바겐 브랜드 이사회는 24일 폭스바겐의 새로운 비전 '트랜스폼(TRANSFORM) 2025+'을 발표하며 폭스바겐 브랜드의 새로운 포지셔닝을 확보하고, e-모빌리티와 커넥티비티에 대대적인 투자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폭스바겐 브랜드가 설명하는 혁신적인 변화는 총 3단계다.

오는 2020년까지(1단계) 핵심 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재구성 및 새로운 경쟁력 개발에 집중하고, 2025년까지(2단계) e-모빌리티 시장 내 선도적 입지를 구축하도록 집중하는 동시에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로 수익성을 다변화할 예정이다.

마지막 3단계인 2025년 이후부터는 자동차업계에서 일어나는 새로운 변화를 능동적으로 선도하면서 새로운 모빌리티 시장을 이끄는 선두주자로 도약하는 것이 목표다. /뉴스

애플 코리아, 아이폰6S 배터리 교체 영문 공지 논란

애플코리아가 일부 아이폰 6S 모델의 결함으로 배터리를 무료로 교체해 준다는 프로그램을 영문으로만 공지해 논란이 되고 있다.

애플 코리아는 24일 자사의 한국 홈페이지를 통해 "아이폰 6S 모델의 전원이 예상치 못하게 꺼지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지난해 9월에서 10월 사이에 생산된 매우 적은 숫자"라고 발표했다.

이어 "이같은 문제가 발생한다면 애플 리테일 매장을 방문하거나 애플의 서비스 제공업체에서 시리얼 넘버를 확인한 후 무료로 배터리 교체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애플코리아 홈페이지에는 한글 번역본이 없었다. 다른 안내문들은 대부분 한글로 게재됐지만 지난 20일 올라온 이 안내문은 분사 홈페이지에 올라온 것과 동일했다. /뉴스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방경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25(덕진동 1가) 전주지방경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jvs.or.kr *전자우편 : jjvs@hanmail.net